청년과 소통 청년 행복도시 실현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 13명 정기회의

청년 고용 촉진 등 정책 시행 계획 심의

남양주시는 5일 시청 예유담에서 '2023년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관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20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심의가 완료됐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민선 8기 청년 공약과 정책 방향을 담은 맞춤형 종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올해 청년 참여·고용·복지·문화 등 총 40개 사업에 1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역 정주를 위한 청년 고용 촉진 △청년 창업 기반 구축 △취업 역량 제고 △경제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청년 마음 돌봄 지원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 12개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 청년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131,83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1월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주요 신규 사업으로 정책 제안 공모 대회와 소통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아카데미, 청년 6T 산업 연계 교육,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추진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와 취·창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IT 업종 등 4차 산업 분야의 첨단산업으로, 청년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서동현 공동위원장은 "제 또한 남양주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79%의 청년 구직자 중 한 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청년들이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기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청년과 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과 청년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남양주/김구용 기자 ggm@hyundailb.com

남양주시가 청년정책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 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사진 : 남양주시 제공)

인천시의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현장 답사 실태조사

인천의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찾는 행보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최근 연구회 대표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김종배·이명규·장성숙·유승분·석정규·한민수 시의원, 정우영 인천시 해양환경과장, 인천시·옹진군 담당공무원 등 총 15명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사)인천섬유산연구소 김기룡 이사장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백령도의 두무진·용뿔심바위·진촌리현무암·몽돌해안·사곶해변, 대청도의 농여해변·마아해변·서풍받이·옥죽동해안사구·검은난장 등을 찾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몸소 체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심사 항석 및 본심청석 제출이 남아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탈수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지질·생태·문화·역사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교류 거점지역을 마련해 오는 2026년 4월 최종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함께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결성된 만큼 올 한해 현장답사를 병행한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해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회는 시와 함께 인천지역의 섬들이 지질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모여 백령·대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pss@hyundailb.com

인천시의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현장 답사를 가졌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고양시, 위기상황 유기적 협조 대처 능력 향상

시의회 의장·군부대장 등 유관기관 통합방위협 회의

고양시가 위기상황 시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지난 5일 육군 제31보병사단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군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기관장 및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방위대비책으로는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고양도 도발에 대한 주민보호, 대북과 테러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유관기관 토의가 이뤄어졌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역할이 논의됐으며 유사시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보호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이날 고양시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작년도 결산 및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해당 군부대의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군이 하나 되어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신속한 유기적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양/고홍오 기자 go@hyundailb.com

용인시의원 5분발언 이모저모

중앙동 중앙시장 등 주차 문제 해결 촉구

남홍숙 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등의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2022년 9월에 개장했다고 언급하며, 건립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3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인근 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주차타워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도로가 좁고 복잡한 중앙시장 내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근 공영주차장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일 장 기간에는 불법주차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제1, 제2 공영주차장은 2017년 기준 28만 대, 2022년에는 41만 대가 이용해 연평균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차량도 827대에서 1,134대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중앙공영주차장도 금학공영주차장도 차량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정기권 이용 주차면적이 중앙공영은 30%, 금학공영은 38%를 차지해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도 부족하다며 확보된 대안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이용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 면적은 협소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산단 지정 지역사회 상생 당부

김상수 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첨단산단 지정과 관련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계자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용인을 살려 키웠으로 삶이 뿌리내리고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인들이 소식을 다져온 덕분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더욱 세심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련해 공급될 대규모 장비와 원자재 같이 큰 것부터 이곳에서 종사할 근로자들의 식자재처럼 작은 것까지 용인시 관내 기업이 우선 공급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업체 생산 제품과 지역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와 원삼면 지역주민,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이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처럼 향후 이동·남사읍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도 산업단지 기업과 이와 유사한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시장에게 입주기업의 관내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배후수요가 확보된 지금이 산업단지 종사자를 비롯해 새로 유입될 시민들이 용인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용인/오용희 기자 oyh@hyundailb.com

이동환 고양시장 등 유관기관장이 지난해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고양시 제공)

의왕 교육행복센터 건립 용역 중간보고회

설문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제 시장, 서성란 도의원, 노선희 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인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과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인재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계양예술대학교 인근에 건립하게 될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는 내손다구역 입주와 마을에서 진행해 결친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에 맞춰 종합적이고 특화된 공공 교육 서비스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건립의 필요성과 입주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분야 전문가와 시민자문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육행복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평생학습 및 건전한 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 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왕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날 중간보고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왕/이정학 기자 ljh@hyundailb.com

편집·정리 정 기자 pjh